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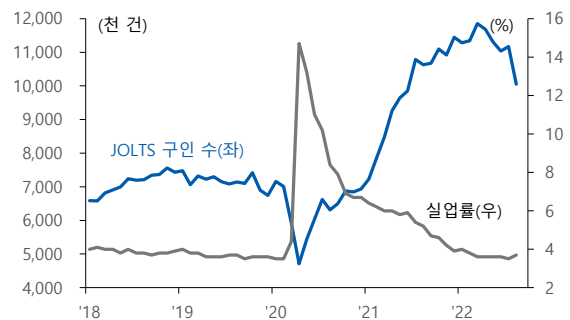


## 가속화될 고용시장 위축, 확인된 불씨

### 1. 구인 건수 급감이 초래할 고용시장 위축

- 8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전월대비 -10.0%, 전년대비 -5.4% 감소.
- 양호한 모습의 실업률은 일반적인 사이클 지표들 가운데 가장 후행.
- 반면 구인 데이터는 실업률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임.
- 구인 데이터가 고용시장의 경기 민감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만큼, 동 지표의 흐름은 현재는 양호해 보이는 고용시장이 향후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

8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1천5만건으로 전월대비 -10.0% 감소. 양호한 흐름의 실업률과 다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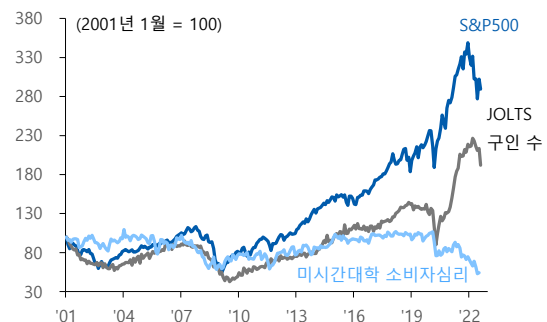


자료: BL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내수 부분의 본격적인 위축을 암시

- 세부적으로 8월에는 경기 흐름과 밀접하고 내수와 관련이 큰 서비스와 소매 부분에서 구인 활동 감소가 확인.
- 결국 동 지표의 흐름은 내수가 중심인 미국의 경기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
-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실업률과 소비 관련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구인 활동 둔화가 확인되며 본격적인 위축이 반영될 국면.

경기 민감성을 포착하는 구인 활동 증감은 소비자심리와 S&P500 지수의 흐름과 연관성이 높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구인 건수 급감이 초래할 고용시장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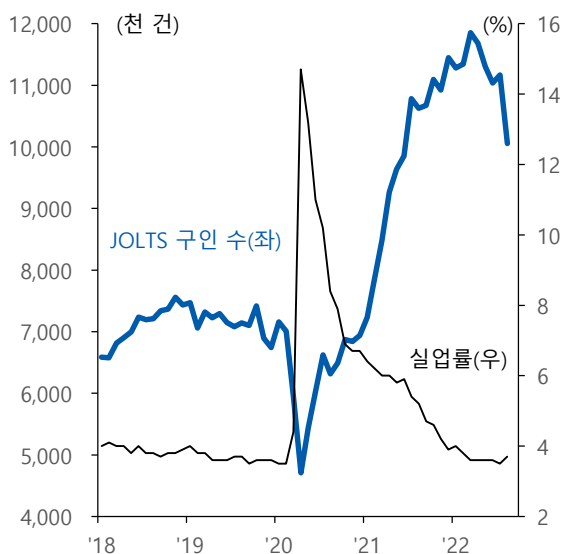
9월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발표된 미국의 구인 데이터는 예상보다 빠르게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8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10,005천 건으로 전월대비 -10.0%, 전년대비 -5.4% 감소했다.

8월에 전월대비 감소한 구인 건수는 -103.4만 건으로, 코로나19 락다운 당시(-104.1만 건)에 육박한 수치이며, 28개월만에 최대치이다. 또한 8월 수치는 9개월만에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로 구인 활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업자당 일자리 비율은 1.7배로 아직 구직자 우위에 있지만, 지난 3월(1.9개)를 고점으로 하락세에 있다.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낮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고려할 때, 동 비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개연성이 높고, 구인난 이슈도 소멸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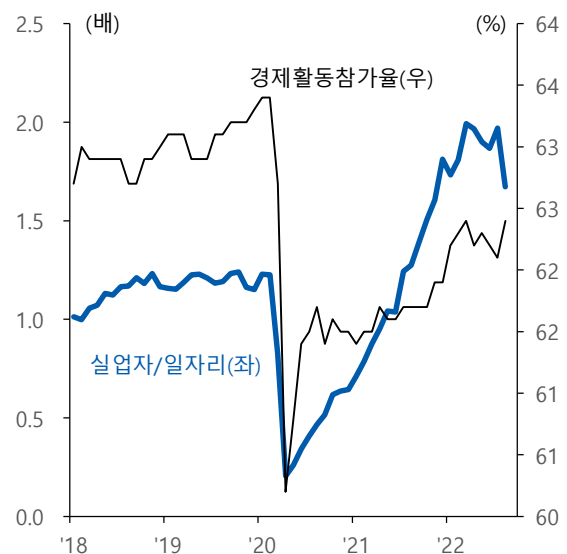
양호한 모습의 실업률은 일반적인 사이클 지표들 가운데 가장 후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구인 데이터는 실업률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인 데이터가 고용시장의 경기 민감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만큼, 동 지표의 흐름은 현재는 양호해 보이는 고용시장이 향후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차트1]** 8월 미국의 구인구직공고 건수는 1천 5만건으로 전월대비 -10.0% 감소. 양호한 흐름의 실업률과 다른 모습.



자료: BL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실업자 당 일자리 비율은 1.7배로 구직자 우위 상황.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분위기는 점차 바뀔 가능성.



자료: BI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내수 부분의 본격적인 위축을 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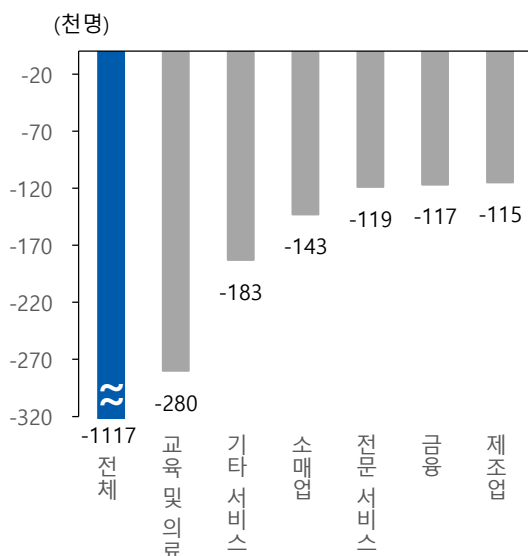
단순히 헤드라인 지표 외에 이번에 발표된 구인 수 데이터를 부문 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구인 데이터에서는 무역 및 운송과 전문서비스가 각각 2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내수 위주의 미국 경제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무역 부문에서 눈에 띄는 업종은 소매업이다. 8월 소매업의 구인은 전월대비 -15.6% 감소하였다. 최근 소매업의 재고 부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가운데, 경기 여건에 민감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큰 폭의 구인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서비스 부문의 구인은 전월대비 -5.9% 감소하였다. 또한 헤드라인 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이후 8월까지 서비스업의 구인은 -45.8만건 감소하였다. 결국 동 지표의 흐름은 내수가 중심인 미국의 경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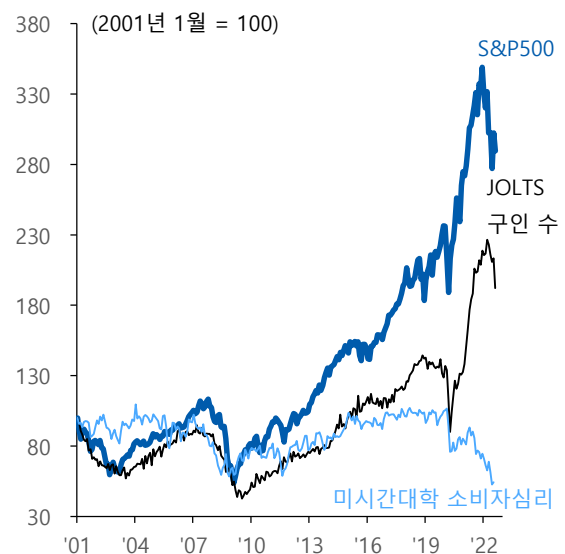
구인 활동에 반영되는 최근 흐름은 소비자심리의 추가적인 낙폭과 더불어 주가의 레벨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실업률과 소비 관련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구인 활동 둔화가 확인되며 본격적인 위축이 반영될 국면으로 생각된다.

[차트3] 구인 활동 고점 대비 부문 별 증감 폭.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 소매업 부문의 구인 활동이 크게 감소.



자료: BL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경기 민감성을 포착하는 구인 활동 증감은 소비자심리와 S&P500 지수의 흐름과 연관성이 높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